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1.29~12.02)

1. 지소미아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CCTV 뉴스(央视新闻)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서 “우리와는 관계없다”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¹⁾
- o 일본 측은 당초 지소미아 종료와 종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 모두 한국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는 일본과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o 매체는 협정 종료를 주장하던 한국이 최후의 순간, 양보를 한 배경에 대해 지소미아는 한·일 문제가 아닌 한·미 문제라며 미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
- o 또한 현재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과거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, 향후 일본이 다른 국가와의 역사 문제 대처 방식이 어떠할지 관련국들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평가
- 전쟁여영요(战争与荣耀)는 한·일 문제에 있어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먼저 양보했음으로 일본 역시 미국 측에 한·미·일 동맹을 위반할 뜻이 없음을 보여야 할 차례라고 보도²⁾
- o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한국 정부의 행동은 큰 양보라고 평가하며, 일본 정부 또한 이에 답을 보여야 할 차례라고 보도
- o 이에 12월 셋째 주 도쿄에서 진행될 제7차 수출 정책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문제에 대해 양보하며,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

1) 「热评国际 | “拉黑”日本的最后一秒, 韩国撤回了 他们还能做朋友吗?」, 『央视新闻』(2019. 11. 29)

2) 「韩国让步终于换来转机, 日本或在下月将韩国移出贸易黑名单」, 『战争与荣耀』(2019. 11. 30)

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

2.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계면신문(界面)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10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이 0원을 기록했다고 인용 보도³⁾
 - o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2018년 10월만 해도 8억 엔에 달했던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이 올해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9.9% 감소한 58만 8,000엔까지 떨어졌고 10월에는 급기야 0원 수준임.
- * 기린, 아사히 등 일본 맥주 제조업체는 본 상황에 대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함.
- o 또한 10월 일본의 對한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.1% 감소했으며, 특히 식품(58.1%), 자동차(70.7%) 분야에서 크게 감소
- o 한편 한국의 불매운동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2019년 1~10월 까지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20%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
- * 한국 전문가들은 2020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대일 무역적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중장기적으로 대일 무역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
- 국제재선(国际在线)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도하며, 일본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사회 현상으로 각인되어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 보도⁴⁾
 - o 매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인의 72.5%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

3) 「钟爱炸鸡啤酒的韩国 已对日本品牌“滴酒不进”」, 『界面』(2019. 11. 29)

4) 「民调称7成韩国人抵制日货 韩商家：日本不让步，我们就继续」, 『国际在线』(2019. 11. 30)

에 참여하고 있고,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정착됐다고 보도

- o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대표는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

3. 기타

□ [언론 동향]

- 팡배신문(澎湃新闻)은 한국 정부가 한·일 관계에 대해 양국의 이견으로 어려움에 빠졌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도⁵⁾
- o 한국의 ‘2019 외교 백서’는 한·일 관계에 대해, ‘19년 10월 이후 강제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 관계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평가

5) 「韩国《2019外交白皮书》出炉：韩日关系因劳工案陷入困境」, 『澎湃新闻』(2019. 11. 29)